

'26. 4. 3.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미 주

- 美, “카리브해 마약선 타격...마약 테러리스트 4명 사망”(MBC뉴스)
 - 3.26 언론은 美 남부사령부가 지정 테러 조직이 운영하는 카리브해 마약 밀매 선박에 대해 합동작전을 실시하여 4명을 사살했으며, 해당 선박은 카리브해의 마약 밀매 항로를 따라 이동 중 이었다 부언
- 美, 뉴욕서 親이스라엘 극단주의자 체포(연합뉴스)
 - 3.29. 언론은 美 뉴욕에서 유명 親팔레스타인 활동가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지려한 남성이 검거되었다며 이 남성은 親이스라엘 성향의 극단 주의 단체 소속으로 폭발물 제조 및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보도

유 럽

- 佛, 파리 美은행 건물 앞 폭탄테러 기도(SBS)
 - 3.30. 언론은 파리의 美은행 근처에서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용의자 1명이 경찰에 체포되고 다른 1명은 도주했다며 이들은 연료로 추정되는 액체 5ℓ와 폭발성 물질 650g을 사용했고 적발 당시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다 보도

아 테

- 韓 경찰, ‘BTS 공연에 휘발유 테러’ 협박 50대 구속 송치(한겨레)
 - 3.25. 언론은 경찰이 지난 BTS 광화문 공연 관련 SNS 게시물에 “생수병에 휘발유 넣어서 투척한다”라며 협박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보도
- 美, 북한 내 대규모 ‘군용 드론 생산 공장’ 의심시설 포착(문화일보)
 - 3.28 언론은 38north*가 위성사진 분석 결과,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무인기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군용 드론 생산공장 의심 시설과 신축 단지들을 포착했다고 보도

- 파키스탄, ‘2026 세계테러지수’에서 사망자 6% 증가하며 1위 기록(news on air)
 - 3.28. 언론은 호주 IEP가 발표한 ‘2026년 세계테러지수’를 인용하여 ‘25년 파키스탄의 테러 사망자가 전년 대비 6% 증가한 1,139명이 발생하며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안보상황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
- 파키스탄, “아프간 탈레반과 3자 통한 휴전협상 진행중”(연합뉴스)
 - 3.30 언론은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제3자 중재를 통한 초기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이며, 중재자에 대해선 함구한 채 협상 실패시에는 다시 무력 대응으로 돌아갈 것을 시사했다고 보도
 - ※ 과거 카타르 등의 중재로 휴전협정 체결과 항구적 평화구축 방안을 논의 하였으나, 아프간 측의 문서상 보증 거부 등으로 무위에 그쳤다고 부언

중 동

- 중동 6개국, “자위권 있다”...이란에 군사 대응 경고(조선일보)
 - 3.26 언론은 중동 6개국이 이란 및 친이란 세력의 공격과 헤즈볼라와 연계된 테러 집단들이 계획하는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규탄하고 자위권에 따른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
- 레바논, UN초소 폭발로 평화유지군 사망...“인도네시아 병사”(동아일보)
 - 3.30 언론은 레바논 남부에서 발사체 폭발로 유엔평화유지군(UNIFIL) 소속 인도네시아 대원 사상자가 발생했으며, 이에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자국민 피해에 대해 어떠한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
 - ※ 레바논 남부 접경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교전이 치열한 곳으로, 평화유지군은 2026년 임무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부언

아프리카

- 美·EU, 사헬 지역 이슬람 극단세력 테러 남하에 맞불 작전(연합뉴스)
 - 3.25. 언론은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남하하는 가운데, 미국은 나이지리아에 드론을 배치하고, EU도 가나와 테러 대응 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테러 ‘맞불 작전’에 나섰다 보도
 - ※ 사헬지역 : 반건조 지대로 서쪽 세네갈부터 동쪽 수단까지

역사 속 테러사건

하마스의 유월절 테러사건

○ 사건 개요 및 배경

- '02.03.27 이스라엘 유월절 기간 중 하마스에 의해 네타냐 소재 파크호텔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테러로 테러범을 제외하고 30명이 사망하고 140명이 부상
* 청산가리 4kg으로 화학공격을 모의했으나, 자살폭탄테러로 전환
-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의 2차 反 이스라엘 무장봉기(Second Intifada, '00.9.28)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



○ 이스라엘 정부 대응

- 이스라엘 정부는 '비상사태'를 선포하고 2만명의 예비군을 동원하는 한편, 익일 대테러 작전(Operation Defensive Shield)을 개시
- 자살폭탄테러 조직의 수장「Qeis Adwan」은 대테러 작전 중 사살되고, 테러공격을 모의한 「Abbas al-Sayed」도 검거되어 35년형을 선고

〈 테러 상식 〉

아마크 통신(Amaq News Agency)

- **(정의)** 이라크와 시리아에 본사를 둔 ISIL의 사실상 선전 매체이나 ISIL은 정식매체로 불인정, 아마크는 '깊은 곳'을 말하며 戰場의 중심에서 보도함을 지칭
- **(특징)** ISIL이 공식적으로 테러소행을 자처하기 전 먼저 발표하며, ISIL의 자극적인 처형장면이나 프로파간다 보다 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, ISIL 영상에 나오는 '나쉬드' 등 배경음이 없음
ISIL이 즐겨쓰는 '칼리프의 군인'이라는 용어 대신 'IS 군인'이라고 표현하며 테러 희생자들을 십자군이나 불신자 대신 '연합국의 민간인'으로 표현하는 등 중립적 용어 사용
- **(주요보도)** 첫 활동은 '14.8월로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, 미군이 시리아 ISIL 지역에 물자를 투하한 일, 파리, 브뤼셀, 니스 테러 등에 대해 보도한 바 있고, '16.3월 팔미라 전투에서 러시아 군인 5명 사살 증명 사진 등 보도

